

3.11 이후 영화에 나타난 변화상*

남가영**
gayoung0110@hanmail.net
조영호***
yhcho@deu.ac.kr

<目次>

- | | |
|-----------------------|--------------------------|
| 1. 연구목적 및 방법 | 2.1.2 黒沢清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 |
| 2. 영화를 통해 본 3.11 | 2.1.3 大林宣彦 <この空の花> |
| 2.1 3.11의 이미지가 침투한 영화 | 3. 마치며 |
| 2.1.1 園子温 <ヒミズ> | |

主題語: 3.11, 쓰나미(tunami), 원전사고(nuclear accident), 福島(hukusima),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 영화(movie)

1. 연구목적 및 방법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관측 사상 최대의 매그니튜드 9.0의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대쓰나미가 태평양 해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치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호기가 수소폭발을 일으켰다. 그로인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반경 20km내 9개 시, 도의 약 78,000명에 대해 피난지시가 내려졌으며, 이 지역들은 「경계지역」으로 명명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 동일본 대재해에 의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동북지방 3県을 중심으로 약 19,000명에 달하며, 피난자 수 또한 340,000명을 넘는 일본 역사상 전쟁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1) 이에 본고는 역사상 최대의 재해 전후의 일본 변화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 시대 상을 반영하며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라는 콘텐츠에 나타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연구교수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2011년 일본경찰청 집계자료.

3.11의 변화상에 대해 다양한 영화작품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영화를 통해 본 3.11

3.11 이라는 일본 사상 초유의 사태발생 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을 통해 매스컴 및 SNS, 유튜브 등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개인의 정보 유출되고 와전된 정보가 영상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분명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필연적으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또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모든 영상콘텐츠들은 3.11과 같은 대재앙의 여파와 실제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사회현상을 어느 매체보다 빠르게 흡수하고 대중화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르이기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당 사회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11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화를 통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1은 영상의 감수성 변화가 요구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원전사고를 다룬 영상의 변화를 경험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의 제1호 원자력 발전은 쓰나미로 인해 모든 교류를 상실하고 원자로에 해수를 주입, 익일 수소폭발이 발생했지만, 피해지역 이외의 사람들은 TV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지켜보았을 뿐이다. 3.11의 재앙은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환경재해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필시 후자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재해이다.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보면 그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본정부와 東京전력의 발표, 국영방송에서 공표되는 정보를 일본인들은 신뢰할 수 없어서, Youtube나 Ustream의 동영상, 후쿠시마 제1원전을 촬영하고 있는 정점 라이브 카메라, 독일 기상청의 방사능 확산 예측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판단해야만 했다. 또한 NHK와 민간방송에서 방송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총리의 관저 앞이나 반원전운동의 고조를 인터넷 웹저널과 OUR PLANET TV를 통한 라이브 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영상의 과잉공급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TV보도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3.11의 피해자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연출한 영상을 반복해서 방영하거나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피해자가 전혀 다른 연출로 재등장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피해자를 단순 볼거리 소재, 스펙타클한 흥미위주로 간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11 직후 폐쇄회로에 찍힌 재해 영상이미지들은 가히 가혹하며 공포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평화롭게 자동차들이 달리던 도로는 대쓰나미가 덮쳐 폐허가 되었으며, 3.11 이전에는 유명하지 않던 후쿠시마는 체르노빌과 같은 핵 공포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쓰나미와는 달리 원전에 관한 사고는 가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을 따름이다. 東京전력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더욱 불안요소는 증가했다. 이러한 의혹은 허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SF영화나 종말론의 작품이라는 3.11 이후 실제로 체험한 영상은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 3.11 이전의 영상에 대한 감수성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3.11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영화들을 통해 3.11의 사건의 이미지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3.11의 이미지가 침투한 영화

3.11 이후의 영상적인 경험은 영화감독 및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園子温, 黒沢清, 大林宣彦감독의 영화가 대표적이다. 영화 속에 침투한 3.11의 이미지 및 변화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1.1 園子温감독의 <ヒミズ>

우선 園子温감독의 <ヒミズ>는 대지진 이후의 시점을 설정하여 3.11과 결부된다. 古谷実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3.11 당시 園子温감독은 원작만화를 각색하고 있던 시기였다. 園子温감독은 3.11의 대참사가 영화에 남긴 즉각적인 동요를 반영하게 된다. 그가 황폐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롱트래킹을 사용할 당시, 3.11로 인해 일본은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에 아버지를 죽이는 오이디푸스라는 신화적 차원을 부여한다.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자란 소년이 그를 사랑하는 어린 소녀와 잔인한 관계를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ヒミズ>는 3.11로 인한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영화는 아니다. 주변인들의 조력과 애정 및 언어와 시가 세계를 재건하고 부서진 존재들의 운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혼돈과 증오에 맞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회와 정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다. <ヒミズ>는 長崎, 広島, 福島에서 이름을 딴 長島라는 곳의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이다. 3.11에서 얻은 교훈이 무색할 만큼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금지구역 또한 자의적인 방식으로 정해진다. 園子温감독은 원전사고 후, 세 커플이 맞는 운명을 다룬다. 노부부는 집을 떠나지 않고 금지구역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한다. 또 다른 젊은 커플의 여자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방사능 측정기 가이저를 손에서 놓지 않으며, 방재복을 벗지 않는다. 영화제목은

비극이 후려치고 지나간 곳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희망은 일차적으로 영화의 베이스에 내재되어 있으며 영화가 지니는 광적인 에너지는 죽음에 대한 일종의 저항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영화 <ヒミズ>의 영상이다.2)



<그림 1> 3.11의 이미지들이 침투되어 있는 이미지

2.1.2 黒沢清감독의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

黒沢清감독의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2013)은 베스트셀러가 된 SF의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이며, 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의 대작으로 2013년 6월에 공개되었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3.11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黒沢清감독은 3.11의 이미지를 영화 속에 그렸다고 인정했다. 주된 스토리는 20대 젊은 만화가 敦美라는 여성이 자살미수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그녀의 어릴 적 친구이며, 현재의 남자친구인 浩市는 그녀의 자살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浩市는 敦美를 구하기 위해 센상이라는 첨단장치를 이용해서 그녀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봉인된 기억 속, 15년 전 사건의 트라우마에 대해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센상이라는 SF적인 장치와 수장용이라고 하는 공상적인 요소를 원작소설에서 빌려 오락영화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스토리로 바꿔 썼다. 일본영화 잡지인 「キネマ旬報」2013년 6월 하순에 실린 黒沢清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黒沢清 감독과 영화관계자들이

2) GAGA배급, 講談社제작 <ヒミズ>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던 것은 2011년 여름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島のリゾート開発失敗の話が出てきますね。ここには、映像的に3.11のイメージが色濃く反映されている印象を受けます。

黒沢：それは僕の意図です。とはいえ自然にそうなったというか、あまり露骨な扱いはなっていませんけれども。脚本を執筆していたのは、地震があった年の夏ぐらいからです。(……)娯楽映画として過去の島をどう出すかと考えたとき、客観的にその島が過去にこうむってしまった被害、ある状況のようなものを描けば上手くいくのではと思いました。

상기 인터뷰 내용 중, 리조트 개발이 실패한 섬의 에피소드에 3.11의 상황이 원용되었다고 하는 것과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 에 노골적이지 않은 형태로 3.11의 이미지를 반영했다는 사실을 黒沢清 감독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인공 浩市는 초등학교 때 리조트 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飛古根島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敦美를 만나고, 그 섬을 떠난 지 15년 동안 한 번도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설정이다. 浩市는 센싱을 반복하지만 敦美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그 섬에서의 과거 기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浩市는 실제로 다시 飛古根島로 가서, 敦美의 아버지인 晴彦를 만난다. 浩市가 그를 따라가자 거기는 리조트 개발이 실패한 흔적으로 광대한 폐허가 펼쳐져 있다. 이 때 오랫동안 이동 샷으로 그려지는 폐허의 영상이 3.11 당시 쓰나미에 의해 파괴된 동북 해안마을과 원전사고 이후 주민들이 피난을 가서 유령도시가 된 후쿠시마 마을을 연상시킨다. 黒沢清 감독이 대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되고 원전사고로 유령도시가 되는 광경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광경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晴彦와 浩市의 대화내용인데, 그 리조트지의 폐허가 3.11과의 연관되어 그려지는 필연성이 담겨져 있다.

晴彦：君が小学生だって大人たちが何かまずいことをやっていたのは、薄々感じてたはずだ。

それなのに島を離れてから15年間、君は一度も戻ってこなかった。島があれからどうなったのか、想像するのも怖くなって知らんぷりを決め込んだんだろ。もちろん、俺だって同罪だ。あのとき、島がこうなるのを黙って見てた。だから、あれから15年間ずっとここに住み続けて罰を受けた。でも、君らは逃げた。それでまたどこか別の場所で、同じ失敗をくり返すつもりなんだろ。

浩市：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父もこう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はずですよ。

晴彦：だったら親父ここに連れてこい

3) 『キネマ旬報(下旬)』(2013), キネマ旬報社

浩市：父は死にました。過労死でした。

晴彦：天罰だな

浩市：父だって犠牲者なんです。ただ会社に命令に従っただけなのに

晴彦：じゃあ、悪いのは誰だ。誰かこの責任をとるつもりだ？

飛古根島섬의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지만, 개발회사의 도산으로 폐허가 된 섬에서 살아가는 晴彦과 도산된 개발회사에 다니는 아버지를 둔 浩市の 대립 장면이다. 이 허구의 시나리오가 3.11 이후의 일본 사회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원전사고를 일으킨 東京전력과 사고로 고향을 빼앗긴 후쿠시마 주민과의 관계를 메타포하기 때문이다. 黒沢清 감독은 사회파 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그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심산으로 영화를 제작한 것은 아니다. 허구의 스토리에 리얼리티를 가미하기 위해 섬이 받은 피해와 인류의 피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설정을 기반으로 연출한 것이다. 일본영화평론가 金子由⁴⁾에 의하면 원래 黒沢清 감독은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영화를 연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오락영화에 까지 3.11의 영향이 미치는 점을 미루어 보아 3.11이 일본 영화작가들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黒沢清 감독의 영화 속에 드러나는 도시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건조하고 차가운 톤을 통해 도시 근교에서 무언가 불길하고 거대한 사건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주며, 전반적인 영상의 이미지가 내적인 불안감과 분열들을 나타내고 있다.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에는 전체적으로 물의 이미지가 인상적으로 투영되어있다. 그것은 敦美가 안고 있는 15년 전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것이 黒沢清 감독 특유의 공포영화로 표현되었을 때, 3.11에서 경험한 영상적 체험을 상기 시켰다. 浩市가 센싱을 계속하자 그 잔상이 현실 세계 속으로 섞여 들어온다. 수수께끼 소년이라는 敦美의 트라우마의 주체가 이미지화되어 현실로 나타나 섬뜩한 공포감을 준다. 강박관념처럼 반복해서 삽입되는 화면인 飛古根島의 바위섬들의 과도 사이에 떠있는 부표의 붉은 깃발 영상,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은 익사한 사람의 이미지, 홍수와 쓰나미에 의해 침수된 이미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거친 바다의 이미지를 연출하여 3.11 이후 너리에 새겨져 있는 무의식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인들의 정서상으로 정면으로 3.11 사건을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11 이후에 제작된 영화에서 재해에 관한 의식과 무의식이 반영되어있는가가 쟁점이 된다. 이런 점에서 黒沢清 감독의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라는 영화는 그러한 쟁점이 잘 반영되어진 영화이다.

4) 일본영화평론가 및 영화제작자 현, 啓夫大学教授 - 「Filmmakers-How to creat individal cineme(2011, Arts and Crafts), Yoshimoto Takaaki : A collection of essays (2913, Arts and Craft)」



<그림 2> 영화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의 영상5)

5) 東宝제작, TOKYO BROADCASTING SYSTEM

2.1.3 大林宣彦 감독의 <この空の花>

3.11 이후 영화 중, 인류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영화 大林宣彦 감독의 <この空の花>는 2012년 4월에 공개되었다. 大林宣彦 감독은 3.11을 경험하고 일본사회의 모순을 각성한 영화감독이다. <この空の花>는 大林宣彦 감독의 기존 영화문법 및 테마성, 영화 기술과는 완전 다른 영화이다. 진지한 내용만으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색다른 표현으로 연출했다고 한다. 大林宣彦 감독은 이 영화를 세미 다큐멘터리 또는 에세이 무비라는 용어로 칭하며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의 이야기는 배경이 되어버리고 감독 자신이 3.11 이후 세상에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전면적으로 표현된 영화이다. 3.11은 태평양 전쟁의 원폭투하와는 다른 문제이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지난 70여 년간 일본사회에서 살아온 大林宣彦 감독은 3.11 사건발생으로「表現者たちは心のスクリーンが真っ白になって映画を作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라고 표현할 정도로 패전 이후의 충격이었던 것이다. 3.11의 충격으로 <この空の花>는 大林宣彦 감독의 영상문법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법률이 정비되어 지난 10년 간 지방공공단체가 필름커미션을 잇달아 설립했다. 이러한 동향으로 지방행정이나 지역기업, 시민의 유지가 주체적으로 지역영화를 기획·제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この空の花>도 이러한 지역영화 중의 하나이다. 長崎 피폭 2세인 신문사 여기자 長岡市에 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 미군의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中越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3.11 이후에는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자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고 있지만, 처음으로 디지털 영화를 찍었다는 大林宣彦 감독은 스피드한 속도감과 복잡한 영상문법을 사용하여 편집했다. 통상적으로 일반 극영화에서 대략 500컷이 사용되는데 <この空の花>에서는 약 3,000컷을 사용했다고 한다. 영화시작 부분에 연습용 모의원자 폭탄이 長岡에 투하되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있고 영화는 그 미공의 역사를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보량과 빠른 전개속도에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 영화의 에피그래프에 ‘未来の子供らに、過去を生きた大人から、今、この映画を贈る’ 라는 에세이가 나온다. 즉, <この空の花>는 3.11을 경험한 広島출신의 大林宣彦가 전쟁과 원폭의 어리석음을 후세에 전달하고 사회적 모순에 각성해야한다는 것을 長岡 패전 당시의 기억을 빌려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스토리는 영화의 배경이 되고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사건은 화면 앞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과다한 정보량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매끄럽지 못하지만, 에세이 영화 특유의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영화 후반에 공습의 밤을 재현한 고교생들의 연극공연 장면이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 저예산 영화라는 점에서 리얼리티감은 낮지만, 지역영화라는 점 등에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의 효과는 더욱 높다. 불꽃의 구슬과 원자폭탄이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世界中の爆弾を花火にして打ち上げれば戦争がなくなるの

에”라는 메시지가 제시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長岡 불꽃놀이가 펼쳐지면서 감동의 피날레가 장식된다. 이와 같이 <この空の花>는 반전과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인 주제이기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함과 동시에 교차되고 중원적인 영화문법으로 영화비평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지역영화이다.



<그림 3> 영화 <この空の花>의 영상6)

6) T.M. Entertainment inc. PSC - 長岡映画製作委員会(長岡から世界へ向けて)

3. 마치며

본고에서는 3.11 이후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극영화나 다큐멘터리 혹은 이미지로 전달되는 영상콘텐츠들이 대재앙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3.11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양상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3.11 이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11에 관한 패닉영화가 셀 수없이 제작되었지만, 영화 기획에서 제작까지의 상당한 소요시간으로 인해 3.11의 참상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표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화계에서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3.11로 인한 원자폭발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언론과 영상매체들이 스마트 폰의 진화로 인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동안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러한 무제한의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영화감독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의 참된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3.11 이후에 제작된 영화 속에는 감독이 의도한 일본인들의 불안감 및 결핍들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인간본질의 중요성, 가족으로의 회귀 등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났다. 3.11 이후 일본인의 기본적 가치관 변화는 미래에 중점을 두며, 자기본위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3.11의 재앙에도 일본 언론은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2015년 3월 19일 NHK에서는 후쿠시마 제 1, 2, 3호기의 멜트다운⁷⁾ 확정을 보도했다.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1억도 이상 상승하여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내리는 것으로 이제 일본은 안전에 대한 철학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3.11은 원자력 사고의 최고 등급인 7등급으로 규정되어져 있지만, 멜트쓰루가 확정된다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7등급을 넘어선 등급을 만들어 3.11 사고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3.11 이후 4년여 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원전사고를 수습하거나 폐로에 대한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경제우선의 사고로 원전재가동의 길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매체들도 3.11의 사고를 다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해류를 통해 지구촌 곳곳으로 그 오염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화 속에 나타나는 3.11 이후의 변화 및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룬 영화를

7) 東京전력은 특수관측기기 무운을 설치. 최초로 내부관측 실시 그 결과 내부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격납용기 아랫부분으로 내려가 있다는 분석. 멜트다운(Melt down) 종료, 멜트쓰루(Melt through)-고위험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을 멜트다운, 한 차례 더 진행되어 녹은 핵연료가 격납용기를 뚫고 나오는 형상을 멜트쓰루라고 함.

살펴보았다. 인간 본질의 중요한 부분들이 표백되거나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비단 일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관심과 자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탈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과 영화기획제작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 나타난 3.11 이후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參考文獻】

金子由(2011)「Filmmakers-How to creat individal cineme(2011, Arts and Crafts), Yoshimoto Takaaki : A collection of essays (2013, Arts and Craft)」

久世敏雄(1988)「現代青年の規範意識と私生活主義について」『名古屋大学教育部紀要』Vol.35 教育心理学科

『キネマ旬報(下旬)』(2013), キネマ旬報社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七版』NHK放送文化研究所編(2010.2)

電通研究(2011)『消費気分調査レポート』四羊期発表

電通研究(2011)『震災一ヶ月後の生活者意識』調査

電通研究(2011)『話題注目商品2011』レポート

電通ネクストステージプロジェクト作成ロードマップ等

電通マーケティングインサイト生活意識定点観測調査6ヶ月後の意識調査

『放送研究と調査』(2009.4, 2009.5)

見田宗介(1966)『価値意識の理論』弘文堂

和田実・久世敏雄(1990)「現代青年の規範意識と私生活主義」『名古屋大学教育部紀』Vol.37, 教育心理学科,

<ヒミズ>(2011)GAGA매급, 講談社제작

<この空の花>(2012)T.M. Entertainment inc. PSC-長岡映画製作委員会(長岡から世界へ向けて) <リアル完全なる首長竜の日>(2013)東宝제작, TOKYO BROADCASTING SYSTEM

Abraham Maslow(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3.11 이후 영화에 나타난 변화상

2011년 3월11일, 일본 사상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쓰나미로 인한 원전폭발이다. 3.11은 일본 역사상 전쟁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본고에서는 3.11이라는 사건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의식변화와 그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화라는 콘텐츠에 나타나는 변화상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극영화나 이미지로 전달되는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3.11의 여파로 사회적 모순에 눈뜨고 탈 원자력운동과 후세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과 결핍들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속에 3.11을 통해 체험한 이미지들을 집투시켰다. 콘텐츠 제작자들의 윤리적인 태도의 결핍과 본질이 왜곡된 정보가 무자비하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송됨으로서 3.11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3.11 전과 후의 의식변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3.11 이전보다 일본인들은 인간의 본질의 중요성 및 가족과 인간 유대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인의 기본적 가치관 변화는 미래에 중점을 두며, 자기본위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동경전력과 일본 정부의 지나친 안정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9일에 NHK은 일본 후쿠시마의 제 1, 2, 3호기의 멜트다운 확정을 보도함으로써 3.11은 더 이상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추가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폐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간본질이 표백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범세계적인 관심과 자각이 요구된다.

Consciousness Change of Japanese After 3.11

- Focus on 3.11 Viewed through Films -

On march 11, 2011, the unprecedented accident in Japanese history occurred. That was a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caused by tsunami. 3.11 was recorded as worst natural disaster since WWII in Japanese histor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nsciousness change of Japanese around accident of 3.11 and the aspect of change which appeared in the film contents reflecting social aspect of the time. The producers of play film based on picture or picture contents transmitted as image manufactured pictures which contain the campaign for free from nuclear energy and message for next generation by recognition of social inconsistency by aftereffect of 3.11. And they put images of 3.11 experience through into the movie to express anxiety and wants that Japanese have. By brutal and real time transmission of nature distorted information due to lack of ethical attitude of contents manufacturers, the victims of 3.11, who already damaged, had doubled pai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survey on consciousness change of Japanese around 3.11 shows the aspect that Japanese think the importance of human nature and the unity of family and human more valuably. Even though the excessive emphasis of Japanese government and Tokyo Electric Power on stableness, NHK reported confirmation of meltdown of Fukushima NPP unit 1,2,3 in Japan, so the 3.11 was on the rise as no more a problem limited in Japan but a problem of all human. The detailed plan on finished nuclear reactors to reduce additional damage and worldwide attention and self-consciousness not to bleach or omit the human nature are needed.